

‘잉여욕망’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탐색 및 기독교 신앙적 해법 - 영화 「기생충」을 중심으로 - *

Psychoanalytic Exploration of Surplus Desire and a Solution
at the Christian Faith Level
- Focusing on the movie “Parasites” -

전성호 (SungHo Jeon)**

이현심 (HyunSim Lee)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창돈 (ChangDon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blem of distorted surplus desire which is expressed by the drive, the work of the mind close to instinct without clear thoughts or aim, combined with the collapse of the ‘Big Other’ in the modern society, and to present a solution at the christian faith level. As a research method, this study attempted a structural analysis to think of a film as a text. Jacques Lacan’s L scheme was applied to explore and structure i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four important points were found. First, the parasitic relationship of the three families based on the ideological belief of the narcissistic familialism in the social psychological situations in which the control function of the ‘Big Other’ does not work properly. Second, the perverted surplus desire problems, including the distorted fantastic gaze and the symbolic manipulation to satisfy the unfilled lack of mind. Third, even if it’s an unreal dream close to delusion, looking at it, the function of fantasy(=agalma) to charge the deficiency of mind to endure the tough reality. Fourth, the problem of in-depth psychology, that the death drive is never foreclosed by a lifestyle that relies on the distorted surplus desire produced by the narcissistic familial illusions, but always returns to the cause of destruc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discussed the subjectivization process of desire unto God through ‘the Cross Prayer Life’ as a solution at the christian faith level to the problem of distorted surplus desire, the modern people’s undeniable self-portrait in the film.

Key words : Parasites, Surplus Desire, Big Other, The Cross Prayer Life, Subjectivization of Desire

* 2020년 02월 21일 접수, 03월 18일 최종수정, 03월 20일 게재확정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박사수료(Seoul Venture University),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5, sungho@gangnam.go.kr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Seoul Venture University),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5, sim7173@suv.ac.kr

**** (사)북한체제트라우마 치유상담센터 이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62길 98, cdlee@kbs.co.kr

I. 서론

영화 ‘기생충’이 세계적 흥행에 성공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인을 포함한 인류 보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종말을 예고(豫告)하는 현 시대의 생활방식(lifestyle) 문제인데, 이를 다양한 장르(genre)의 영상과 언어를 통하여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번역(翻譯)을 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 ‘기생충’은 전체적으로 볼 때, 관객에게 시원한 재미를 느끼게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욕망의 실현과 성취 장면의 동일시(同一視)를 통한 마음의 기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의 좌절과 삶의 파멸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수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지만, 소화되지 않은 욕망의 찌꺼기를 남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살면 모두 다 망하게 된다.’는 경고(警告)의 메시지를 영상미학적으로 제대로 담아냄으로써, 역설적으로 욕망의 본질로서의 관객(인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용어로서 흔히 탈근대 포스트모던 다문화주의를 말하고 있다(오미란, 2007). 탈근대란, 한마디로 전통이 붕괴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억압되고 소외되었던 서양보다는 동양, 남성보다는 여성, 이성애자보다는 동성애자, 생명욕동보다는 죽음욕동, 중심보다는 주변, 표면적 의식보다는 이면적 무의식 등 탈(脫)구조 현상들이 새롭게 조명되는 사회적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던 사회의 모습을 정신분석학 용어로 표현하면, 대타자(大他者, Big Other)¹ 붕괴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영화 ‘기생충’에서 보여주는 전체적인 사회적 배경 역시 대타자 붕괴상황이라고 분별된다.

본 소고(小考)의 목적은 욕망의 원시적(原始的) 형태인 욕동(慾動, drive)의 왜곡된 흐름 문제를 분석하고, 그 흐름의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욕동은 한편으로는 삶의 동력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욕동은 생산성의 근원적인 힘이라고 이해되기도 하고,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缺乏)의 원인이라고 이해되기도 한다. 이처럼 욕동에 대한 이해가 상반되는 것은 욕동의 관계 지향적(relationship-oriented) 속성 때문이다. 욕동은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무엇

1) 대타자 또는 큰타자로 번역되는 프랑스어 Autre(Other)는 정신분석학에서 “개별 주체들이 경험하는 상징적 질서(the Symbolic Order) 또는 그러한 질서를 대리 표상하는 다른 주체”를 의미한다(하상복, 2006). 예컨대, 바둑게임에서 좌우 각각 19줄의 바둑판, 흑백 바둑돌 그리고 둘러싸이면 죽는다는 원리 등은 바둑게임의 근원적인 바탕 질서로서의 대타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갓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양육자)는 대타자로 여겨진다. 아기의 생존과 행복은 그녀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기의 대타자(그녀)의 대타자 그리고 그 대타자의 대타자 즉, 인간사회의 보편적인 대타자는 무엇인지 의문이 생긴다. Jacques Lacan 정신분석에 따르면, 이에 대한 해답은 ‘기호형식의 저장소’로서의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질서, 상징계(象徵界, symbolic)이다. 이는 ‘말하는 인간’이라는 특성을 중시하는 언어학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인가를 향(向)해 흐르고 움직인다. 여기서 ‘향하고 관계하는 과정과 흐름’이 욕동의 진화(進化) 과정이다. 욕동 자체는 선택능력이 없고 계획도 없다. 다만, 쾌락과 향락(享樂, jouissance)의 기쁨을 추구할 뿐이다. 쾌락과 향락은 모두 기쁨이라는 차원에서는 같다고 말할 수 있지만, 쾌락은 현실적 제약(制約) 안(within)에서 추구되는 기쁨이고, 향락은 현실적 제약과 금지를 위반(違反)해서라도 추구되는 기쁨이라는 면에서 구별된다(박찬부, 2011).

본 연구는 인간의 욕동(drive)이 현대사회의 대타자 붕괴상황과 결합하여 나타내는 잉여욕망의 문제를 영화 ‘기생충’의 핵심 주제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탐색 및 기독교 신앙적 해법을 제시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행위는 대타자의 억압이 미쳐 포섭하지 못한 잉여욕망이 교환되면서 끊임 없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권택영, 2003).

이 영화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해당하는 현대사회의 생활방식 문제점을 세 가족을 통해 보여준다. 이 영화에 나타난 세 가족 중에서, 특히 ‘기우’의 가족은 자신의 가족행복을 위해 기생충 같은 생활방식도 마다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생충 같은 생활방식은 제대로 정화(淨化)되지 않은 욕망의 문제가 ‘나르시시즘(Narcissism) 가족주의’로 드러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허만섭(2020)은 ‘문화자본론 관점에서 본 영화 <기생충>에서 현대에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상징적 폭력과 아비투스(Habitus)² 개념으로 분석하였고 둘째, 손성우(2019)의 ‘영화 <기생충>의 욕망의 자리와 환상의 윤리’는 정신분석학적 연구로서, 신자유주의 체제의 경쟁과 갈등 문제뿐만 아니라, 공생의 조건으로 환상의 윤리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이다운(2019)은 ‘영화 <기생충> 연구 : 희비극으로 재현한 계급 공존의 불가능성’에서 계급적 패배감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서로 함께 살 수 없다는 비판적 분석과 관객들의 성찰 촉구 수준에서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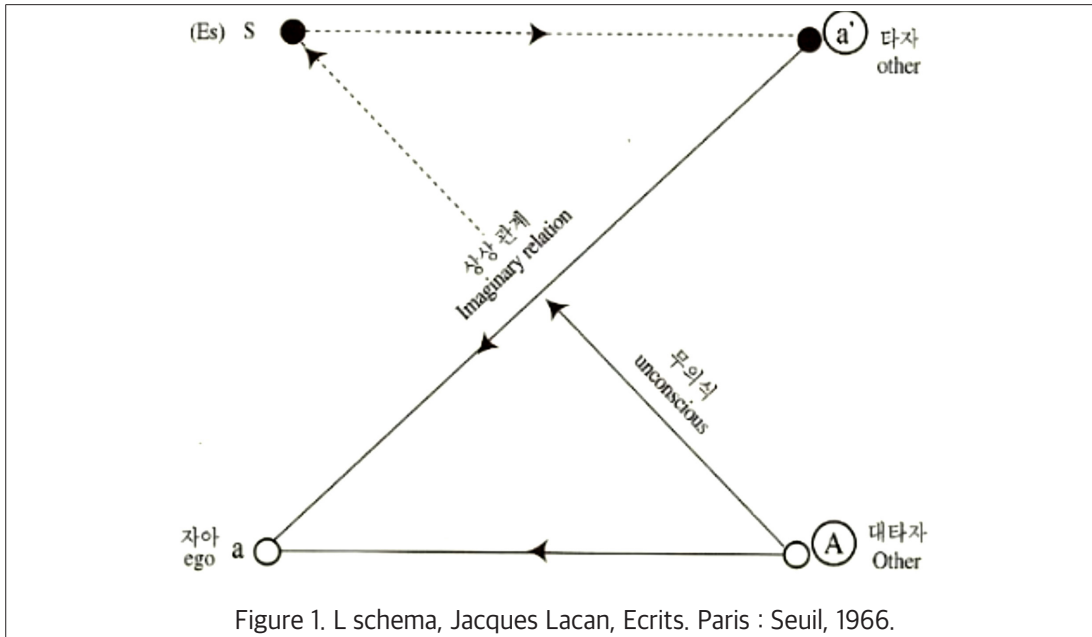
선행연구들은 영화 ‘기생충’에 대하여 각각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인간이 향자적(向自的, relationship-oriented) 존재라는 점에 착안(着眼)하여 욕망 대상을 근본적으로 자리바꿈하는 방식을 실천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소고는 이론적 근거로서 Lacan의 L도식에 대하여 살펴본 후, 본문에서 영화에 나타난 나르시시즘적 가족주의 환상(幻想)이 생산하는 잉여욕망과 파멸적 결과에 대해 분석하였고, 결론 부분에서는 이 영화가 제기하는 도착적 잉여욕망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 신앙적 해법(solution), 하나님을 향한 욕망의 주체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개인이 획득하는 영구적인 하나의 성향체계

II. 이론적 근거 : L도식

Lacan은 그의 정신분석이론을 다이어그램으로 기술하였는데, 그 가운데 처음 등장한 것이 L도식(L schema)이다. 이 도식은 그리스 알파벳 열한 번째 글자인 대문자 람다(lambda)와 형태가 유사해서 L도식으로 불린다. 이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도표화해서 나타낸 것이다.



<L도식>왼쪽 상단 S는 무의식적 주체(Es)의 자리, 대각선 방향의 오른쪽 아래 A는 대타자(Big Other), 왼쪽 하단의 a는 자아(ego), 오른쪽 상단 a'는 소타자(small other)이다.

인간의 내면세계의 출발점은 대타자이다.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의 심층(深層)에서 무의식적 주체(Es, 욕동)와 대타자는 상징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마음의 심층(무의식)에서의 상징적 관계가, 마음의 표층(의식)적 차원에서는 자아와 소타자의 상상적 관계(imaginary relation, 의식)로 나타난다. 이는 <L도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타자의 무의식적 주체를 향한 대각선 방향의 무의식 흐름이 상상계(의식)에 의해 막혀있기 때문이다. 결국, 보이지 않는 무의식 세계의 진실이 의식 세계에서 왜곡(歪曲)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자아의 의식(상상계)은 근본적으로 오인(誤認)과 착각(錯覺)을 포함하는 세계임을 뜻한다.

자아(ego)는 소타자의 이미지와의 동일시(同一視) 과정에서 발생한다. 예컨대, 6개월부터 18개월 사이, 언어의 세계인 상징계로 들어서기 전, 유아는 자기 자신과 외부 대상을 구별하지 못한다. 거울에 비

친 자기모습을 보며 환호하고 비로소 이상적 자아상을 갖게 된다(서상문, 2011). 이때 심층(深層) 대타자의 자리(Big Other seat)를 차지하고 있던 엄마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바로 너야’라고 인정하는 말(=하단의 실선, 대타자→자아)을 하는데, 유아는 이 말을 듣고 거울이미지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 엄마의 인정 시선과 신호가 바로 대타자의 장소로부터 오는 상징적 기호형식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도식L>은 무의식적 주체와 자아의 형성과정을 보여준다. 무의식적 주체(Es)는 대타자의 기호형식에 의해 표상됨으로써 발생하고, 자아는 소타자의 이미지와 동일시함으로써 발생한다. 자아(ego)와 무의식 주체(Es)는 직접 소통하지 못하고, 반드시 소타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통하게 된다. 서로 떨어져서 분열돼 있다.

최초의 원시적 무의식 주체(Es)는 야생마에 비유되는 이드(id)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기사(騎士, knight)에 비유될 수 있는 대타자는 무의식의 원시적 주체가 세상에 적응하도록 길들인다. 무의식 주체는 대타자의 세계, 상징계에 온전히 진입하지 않고는 건강한 생존을 보장받기 어렵다. 따라서 쾌락원리에 따라서 무의식적 주체 자신의 기쁨을 조급하게 추구하기 전에 먼저 타자의 기쁨을 위해 봉사하는 것, 현실원리를 배운다. 예컨대, 갓 태어난 아기의 정신세계는 출생이전에 이미 존재해 있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사회의 가치와 질서가 아기의 정신세계에 침투되면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대타자(상징계)에 적응하고 상징을 다루는 방식을 체득할 때 비로소 주체의 면모(面貌)를 갖추게 된다고 하겠다.

무의식 주체(Es)가 대타자(상징계)와 일체(一體, 한몸)가 되었다면, 불교적으로는 성불(成佛)했다고 할 수 있겠고, 기독교 예수는 대타자(상징계, 말씀)가 육체(肉體)로 태어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젊은 시절 이전에는 무엇(누구)을 어떻게 만나는가에 따라서, 성인이 된 이후에는 만남에 대한 주체의 응답에 따라서 인격의 수준(운명)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대타자는 원칙적으로 비인격적 언어(기호형식)의 자리이다. 말씀의 자리 또는 도(道)의 자리라고도 할 수 있겠다. 무의식 세계이다. 소타자는 단순히 실체로서의 타자가 아니다. 욕망의 거울에 비친 자아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타자는 자기와 닮은 타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실재를 보지 못하고 자기 욕망의 거울을 통해서 본다(상상적 동일시). 대타자는 결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 그러나 말하는 존재로서의 모든 사람들은 언어의 장소인 대타자의 영향권 안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실선만으로 파악되는 자아(ego)는 상상적 허구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점선으로 표시된 욕망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인간이해를 위한 정신분석학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상단의 점선은 무의식 주체에서 소타자로의 심리적 에너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소타자는 실체로서의 타자가 아니라, 환상(幻想)을 통해 본 이미지(image)라고 할 수 있다. 즉, 왜곡된 시선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보이는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욕망의 구멍(결핍)을 채워줄 것으로 믿어지는 대상이다. 모든 주체는 욕망을 생산하고 이를 좇지만 결코 완전히 충족되는 법이 없다. 욕망이란, 주체

에게 결핍된 것(=없는 것)이 사랑의 대상에게 상상적으로 투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 사회, 언어, 소통 등의 상징계의 체계에 잡히지 않고, 포기(拋棄)되고 남은 심적(心的) 에너지가 잉여욕동이다. 이는 상징계(대타자)에 미쳐 포섭되지 못한 실재(實在)의 잔여물이다. 욕동은 현실 원칙의 억압으로 분열된 주체의 자기동일성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인(誤認)을 통해서 자신을 구성하고 환상(幻想) 속에서 자신을 실현(만족)시킨다.

III. 연구방법

영화를 한 편의 텍스트로 사고하는 구조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조론적 분석이란, 연구대상의 전체를 꿰뚫어보기 위하여 먼저 그 구조를 파악하자는 것이고, 그 대상의 다양한 내용을 간추릴 때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면서 영역과 차원을 달리하는 유형적인 요약을 시도하는 것이다(김중기, 1999).

Lacan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상징계, 실재계, 상상계로 구조화하였는데, 이는 보로메오 매듭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이면서 셋’ 또는 ‘하나도 아니고 셋도 아닌’ 관계이다. 보로메오 매듭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 개의 매듭처럼 보이지만 하나나 둘을 놓고 볼 때는 서로 분리 되어있고, 셋을 합쳐 놓고 보면 고리들이 세 잎 모양의 매듭처럼 하나로 결합되어 보인다.

본 연구는 Lacan의 정신분석이론을 바탕으로 영화에 숨겨진 무의식 세계, 특히 잉여욕망 문제를 찾고, 이를 L도식을 적용하여 구조화하려고 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타자(Big Other) 붕괴(崩壞) 상황과 나르시시즘(Narcissism)적 가족주의

영화 ‘기생충’의 사회심리적인 배경은, 포스트모던적 대타자 붕괴상황과 가족 나르시시즘(Narcissism)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나르시시즘의 욕망은 통제(統制)보다는 오히려 탈주(脫走)의 자유를 얻고 있다. 욕망의 탈주 개념은 탈근대사회를 대변하는 이름처럼 되었다(김명주, 2009). 영화에서 제기(提起)된 문제는 긍정적 차원의 생산적인 탈주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산적인 탈주란, 각 개인 및 집단이 자기 책임 하에 새로운 존재(New being)와 새것(New thing)을 구성(構成)해 나가기 위한 시도(試圖)를 말한다. 그런데 영화 ‘기생충’에서 가족 나르시시즘으로서의 욕망의 탈주는, 결코 창조적인 새 존재를 향한 모습이 아니다. 실재(實在, the real)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

지 못하고, 왜곡된 응시에 의한 환상을 통해 상상계적 자아(ego)의 강화(強化)만을 추구한다. 이러한 모습은 참자기를 사랑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체적인 나르시시즘이라 볼 수 없다.

여기서 무의식 주체(S)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

(a) 원시적 주체 → (b) 대타자(상징계) → (c) 무의식 주체

(a)원시적 주체는 100% 순수욕동(drive)의 상태이다. 세상에 막 태어난 아기의 상태, 더 정확하게 성서적으로 표현하면, 선악과 사건 이전 원죄(原罪)와 무관한 아담의 내면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영화에서 순수에 가장 가까운 인물은 ‘연교’의 아들 ‘다송’이다.

외부현실의 언어와 법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b)외부(外部) 질서가 아기의 내면세계로 침투하여 아기의 마음속에 대타자(상징계) 질서가 형성되면서 (c)무의식 주체는 분열된다. 성서의 선악과 사건으로 설명하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이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후, 그들의 내면세계에 뱀의 질서가 형성되었다. 선악의 분별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문제는 기준과 잣대이다.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참된 대타자(하나님 말씀) 질서와 ‘먹어도 문제없다’는 거짓된 대타자(뱀의 말) 질서의 대립과 상호작용(相互作用)을 역사, 문학, 서신, 이야기 등 다양한 형식의 언어로 표현하면서, 특히 선민(選民)의 내면세계 질서 형성에 매우 큰 관심을 표명(表明)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의 근원적 본질은 욕망 자체라기보다는 욕망이 향(向)하고 관계하는 내면의 질서, 대타자라는 것이 파악된다.

100% 순수 욕동(drive)은 대타자 질서에 적응되고 포섭된 형태인 욕망(desire)과 대타자 질서에 아직 포섭되지 않은 나머지 욕동(drive)으로 구별될 수 있다. 이 나머지(잉여) 욕동이, 쾌락원칙을 넘어서는 고통을 수반(隨伴)하는 향락을 향(向)하는, 잉여욕망의 원형(原形)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욕망은 대타자(상징계) 영역 내에서의 기쁨을 추구하지만, 욕동은 대타자의 결여(缺如) 영역, 즉 실재계(實在界)의 기쁨을 추구한다. 이때 대타자의 금기(禁忌)와 거세(去勢)의 질서를 넘어서야 하는 고통이 따른다. 그러므로 향락(jouissance)을 향하는 잉여욕망에는 반드시 고통이 동반된다. 영화 「기생충」도 잉여욕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성서에도 잉여욕망의 고통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온전한 하늘의 평안을 향(向)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환난(患難)이다(요16:33). 그러나 이러한 환난의 근원은 선민의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기에, 곧 이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영화 「기생충」에서 나타난 잉여욕망과 성서에 나타난 잉여욕망의 질적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 「기생충」의 잉여욕망은 대타자가 붕괴된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도착적(倒錯的) 욕망이며, 반면 성서에서의 잉여욕망은 순수욕망으로서 실재 하나님을 지향하는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잉여욕망의 두 가지 모습은 욕망이 향하는 대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별된다.

욕망(conatus)은 자기보존 및 확장의 힘이다(Spinoza, Baruch De).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본능적으로 살아남고자 하며, 스스로의 힘을 강화하면서 또한 자신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려고 한다. 영화 ‘기생충’에서도 이러한 욕망의 흐름은 여실히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의 흐름은 영화의 끝에 이를수록 인간존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멸시키는 힘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인간의 본질인 욕망 자체보다는 ‘욕망하는 방식과 욕망대상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대타자의 통제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심리사회적 상황에서 나르시시즘적 가족주의라는 숭고(崇古)한 이데올로기 신념에 기초한 세 가족의 기생적인 관계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한 왜곡된 응시(환상)와 위장(偽裝)으로 넘쳐난다. 예컨대, 영화 내용 중 연세대에 들어가서 ‘다혜’와 결혼, 박사장 사위가 되어 자기 가정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기우’의 생각 등은 모두 실패로 끝난다. 왜냐하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결핍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 도착(倒錯)적 잉여욕망, 상징적 조작(造作)

욕동은 억압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억압된 무의식은 반드시 회귀한다. 그러므로 현대사회는 문학 예술이나 스포츠, 오락 게임 등 인위적인 장치를 통해 배설(排泄)하는 편을 택한다. 욕동의 우회적인 만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회적인 전략이 성공하지 못할 때, 법과 질서라는 상징계의 금기를 벗어나는 욕동(실재계)은 사회와 문명의 요구를 피해 위장하면서, 통제 불가능한 잉여욕망이 되어 사회와 문명을 파괴하는 폭력과 테러가 된다. 특히 주체의 환상이 깨질 때, 잉여욕망은 파괴적 괴물이 된다. 영화에서 수석(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로 돌변하는 장면은, 통제를 벗어난 잉여욕망의 파괴성을 대표하고 있다.

영화 ‘기생충’에서 대타자(상징계)의 이면적 모습이 나타나는데, 법의 질서는 낮과 밤의 원리가 다르다. 밤에는 공식적인 법이 통용되지 않는다. 밤의 법은 대단히 외설(猥褻)적이다. 예컨대,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하지만, 병사를 구타하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부대에서 선후배 질서를 문란하게 한 병사는 비공식적으로는 구타당한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성문법과 상치(相馳)되는 관행으로서의 법이 있다. 관행의 법집행은 아무도 발설(發說)하지 않는다. 공개적으로는 모두 모르는 척 한다. 따라서 위법이면서 동시에 위법이 아닌 외설적 행동이 통용된다. 영화 ‘기생충’에서도 숭고한 이념으로 작용한 나르시시즘적 가족주의 안에서 밤의 법이 횡행(橫行)한다. 이러한 낮과 밤의 분열적인 법의 모습은 민주사회라고 예외가 아니다. 집단(=작은 대타자, small big other) 이기주의는 대타자(Big Other)의 이면(裏面)이다. 이러한 외설적 작은 대타자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아(ego)는 많지 않다.

Lacan에게 초자아는, Freud의 도덕원리라기보다는, 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근본적 욕망을 배신하고 상징적 질서 속에 자신에게 강요된 밤의 역할을 즐기도록 만드는 외설(猥褻)적 심리기제이다(김용규,

2004). 이러한 초자아는 우리가 상징적 질서 속에서 강요된 선택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즉 주체가 사회적으로 결정된 상징적 역할을 따라야 할 이상(=자아이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주체 자신의 더욱 근본적 욕망을 배반했다는 죄의식에 기생(寄生)한다. 초자아 역시 강요된 선택임에도 마치 주체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훨씬 더 강력한 명령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초자아의 그러한 명령에 굴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욕망을 더럽힌 죄의식도 증가한다. 초자아를 따르면 따를수록 죄의식이 증가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Lacan의 초자아는 더 이상 정상적인 도덕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밤의 비공식적 도덕이기 때문에 더욱 교묘하다.

개인 주체는 외면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대타자의 욕망과 초자아의 외설적 욕망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상징적 조작이 일어나는 것이다. 영화에서 위조된 재학증명서, 팬티, 명함, 인맥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 ‘독도는 우리 땅’ 리듬에 따라 “제시카는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진모...” 라고 가사를 바꾸어 노래하는 ‘기정’의 숨씨는 상징적 조작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 가족의 기생관계는 단순히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이외에 실재적인 결핍을 메꾸기 위한 속임수로 가득하다. 상징적 조작들은 모두 진정성이 결여된 거짓이고 이를 포장하는 사회적 관계이다. 사랑하는데 사랑이 없다. 자유로운 것 같은데 자유가 없다. 가족이라는 신념에 충실하게 살고 있다는 상징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도착적 잉여욕망 행위가 넘쳐난다. 기생충이나 괴물로서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선택한다. 기생충에 가까운 생활방식을 하는 것으로 직접 묘사된 ‘기택’ 식구 뿐만 아니라, 고급주택의 주인 ‘동익’과 ‘연교’도 허약한 주변인들에게 심리적 착취를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이들이야말로 기생충 생활방식을 즐기고 있는 위선자(僞善者)라는 것이 드러난다.

3. 욕망의 대상, 아갈마(agalma)

Agalma는 그리스어로 신에게 바치는 영광이나 장식품 또는 신을 본뜬 작은 입상을 뜻한다. Lacan은 agalma를 차용(借用)하여 욕망의 ‘대상 a’를 설명하였다(윤경희, 2013). Platon의 《향연》에서 아테네 명문 출신이고 재능과 미모 모두 뛰어나 당시 정치, 군사 양면에서 겹출(傑出)했었던 Alkibiades가 Socrates의 추한 외모의 이면(裏面)에 소중한 미지의 것(agalma)이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Socrates를 사랑한다(동성애). 이처럼 인간은 타자에게서 늘 자신의 욕망의 대상(agalma)을 찾게 되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된다. Socrates는 자신에게는 결코 Alkibiades가 원하는 agalma가 없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사랑은 욕망의 속임수라는 말이 성립된다.

영화 ‘기생충’에서 순진하면서도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연교’는 자기 아들 ‘다송’이 미술 천재라는 환상 속에 빠져있다. ‘다송’은 ‘연교’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녀의 욕망의 대상(agalma)은 아들 ‘다송’으로 부터 확인하고 싶은 미술천재성이다. Agalma는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그 자체이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

고, 끝까지 찾고자 하는 자는 인위적인 환상과 망상까지도 요구하게 된다. 영화에서 ‘연교’는 소파에서 신음 속에서 남편에게 “마약 사줘!”라고 소리친다. 욕망의 인간들은 환상이 주는 만족(agalma) 없이는 사막처럼 삭막하고도 냉혹한 현실을 결코 직면할 수 없음을 암시하는 대사라고 볼 수 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근세’의 암굴왕 위치를 차지하게 된 ‘기택’의 아들 ‘기우’가 고급저택을 사겠다고 결심하는 모습 역시 현실성 없는 환상임을 암시하는 장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망상에 가까운 비현실적인 꿈일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단한 현실을 견딜 수 있다. 여기서 환상은 결핍을 충전(充填)한다는 말이 성립된다. 왜곡된 응시의 욕망이 대상a(agalma)의 원인이다. 역으로 환상의 대상a(agalma)는 욕망의 구멍(결핍)을 충전한다. ‘agalma는 없다’는 진실은 환상의 장막(帳幕)이 거워지면서 나타나는 섬뜩하고 끔찍한 실재계를 통해 드러난다. 일상생활에서 이면(실재)은 은폐되지만, 영화에서 저택 암굴에 살던 ‘근세’의 존재가 땅 위로 드러나면서, 지상의 모든 상징적 결핍과 상상적 환상은 그 실체가 밝혀진다.

4. 문명 속의 불만, 죽음욕동

문명(文明)은 기본적으로는 사회의 응집성(凝集性)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욕동을 제한한다. 이러한 문명과 개인의 갈등을 인간 내면에 구조화한 것이 Freud의 삼중구조 심리학(id, ego, superego)이다.

그런데 후기 자본주의 현대문명의 이면(裏面)은 오히려 욕동 에너지의 배설(排泄)과 발산(發散)을 권장한다. 욕망(欲望)과 향락(享樂)의 사치(奢侈)를 즐기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게임과 도박 등 향락을 권장하고,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중독예방(中毒豫防)을 모색한다. 따라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 주체는 심리적 항상성(恒常性)을 유지하기가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살(죽음욕동)이 증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죽음욕동은 어린 시절 잃어버린 조화, 즉 엄마와의 한 몸(one body) 상태에 대한 그리움, 향수(鄉愁)라고 할 수 있다. 인류학적으로는 성서에 나오는 에덴동산 또는 Platon의 대화편(Timaios)에 나오는 아틀란티스 등 상실된 그러나 무의식적 기억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기쁨 충만의 땅에 대한 복낙원(復樂園, Paradise Regained) 향수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나르시시즘적 자살 경향으로서 긴장 제로를 지향하는 욕동(=열반원칙, 涅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죽음욕동은 영화 ‘기생충’에서 반문명의 상징인 인디언 복장으로 나타나서, 모든 잉여욕망의 반복구조를 종식시킨다.

죽음욕동은 피로와 분노와 불안 등이 뒤섞일 때 폭발(暴發)하게 된다. 죽음욕동은 생명에 내재(內在)된 이면(裏面)이다(남경아, 2014). 영화에서 저택(邸宅)의 지하에 숨겨있는 생활이 생명의 이면(裏面)으로서의 실재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하(실재계)에 사는 ‘근세’와 ‘기택’의 센서 등(燈) 스위치 조작은 지상(상징계 및 상상계)과 소통하려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실재는 죽음욕동의 다른 이름

이다. 심리적 착취(搾取)가 극점(極點)에 도달했다고 느껴질 때, 죽음욕동은 간접 경로를 우회하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예컨대, 성경에서 ‘여호와와 날(the day of the LORD)’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고 은폐되어 있던, 실재의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는 때로서, 이때는 심판과 죽음의 날이다. 동시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하다. 여호와 주의 날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등졌던 모든 죄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두려운 심판의 날인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向)했던 자들에게는 승리와 구원과 은혜의 날이다(사13:6; 욥2:11; 습1:7).

영화 ‘기생충’은 관객에게 불편한 느낌을 주면서도, 생활방식의 혁신이라는 도전을 던진다. 즉, 대타자 붕괴상황에서 나르시시즘적 가족이기주의 환상이 생산하는 잉여욕망에 의존하는 생활방식만으로는 문명 속의 불만, 죽음욕동(=실재의 출현)을 결단코 억압, 은폐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내재(內在)하고 있다.

V. 결론 : 하나님을 향(向)한 욕망의 주체화

영화 ‘기생충’은 세계인들을 불편함에 몰아넣었다. 이는 현대인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에 대한 강렬한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해법(solution)은 전적으로 관객들의 과제(課題)로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영화 ‘기생충’에서 나타난 핵심적인 문제를 대타자 붕괴와 도착적 잉여욕망으로 파악하고, Lacan의 L도식을 적용하여 구조화하였는데, 결론 부분에서는 문제에 대한 기독교 신앙적 해법, 하나님을 향(向)한 ‘욕망의 주체화 과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욕망의 주체화 개념을 설명한 이후, 욕망의 주체화 개념과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 욕망의 관련성을 연결시킨 다음, Figure 2 성막(tabernacle)과 인간 마음의 비유적 동일 구조(構造)에 대하여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욕망의 주체화 과정에 해당하는, 다섯 단계³로 구성된 ‘십자가 기도생활(The Cross prayer Life)’을 제안하고자 한다.

‘욕망의 주체화’란, 한마디로 잘못된 대상을 향해 있는 욕망을 온전한 대상을 향해(unto) 자리바꿈(transposition)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욕망은 대부분 타자의 욕망이며, 타자로부터 인정(認定)받으려는 욕망이다(김석, 2006). 이는 상상계적 소타자의 욕망이든지 상징계적 대타자의 욕망이라는 뜻이다. 욕망의 주체화 과정은 이러한 욕망의 타자적인 속성을 깨닫고 벗어나는 과정이다. 이를 욕망의 선형(線形)

3) 욕망의 주체화 과정 5단계 : 인간변화를 촉진하는 다섯 가지 조건(김창대, 2009)을 성서적 언어로 번역(翻譯), 재구조화(再構造化)하였다. 5가지 조건 Authenticity, Self validation, Pattern change, Acquisition of knowledge and skills, Taking existential position 등에서, 예컨대 Pattern change는 옛 존재의 죽음으로 Taking existential position은 새로운 존재로 번역될 수 있다.

적 자리바꿈 단계로 나타낸다면, 상상계적 대상에서 상징계적 대상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실재적 대상을 향(向)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여기서 실재를 향한다는 말의 의미는 소타자든 대타자든 타자의 욕망으로부터 떠나고 분리되는 발달적 애도(哀悼) 과정을 의미하며(김홍근, 2010), 욕망의 주체화는 주체의 궁핍(窮乏)을 통해 완성된다(김석, 2014). 이는 상징계에서 소외되는 존재에 대한 갈망이다(김석, 2006).

성서의 가르침 역시 마음의 궁핍을 강조하면서(마5:3),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롬6:11)고 가르친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씀을 정신분석적으로 이해하면, 세상으로부터의 자발적 소외(疏外)를 통해서만 존재를 향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더 나은 본향(히11:16),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믿음의 여정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이다. 즉 상상계와 상징계에 대한 애착을 끝내고, 실재계를 향(向)하여 하나님을 욕망하라는 의미다.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면, 세상 언어의 세계인 결여(缺如)된 상징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태초의 하나님 말씀 세계인 예수 그리스도(요1:1)를 욕망하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욕망의 주체화이며, 이는 영화 ‘기생충’에서 나타난 도착적 잉여욕망을 자리바꿈시키는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욕망하는 방법은 기도(祈禱)인데(막11:17, 사56:7), 구약 성서의 성막(聖幕)과 성전(聖殿)은 하나님 이름을 두는 곳이며(왕상8:16, 29), 기도하는 집이다(막11:17, 사56:7). 건물 성전은 신약 성서에서 마음의 성전, 인격 성전으로 대체(代替)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성전이 상징하던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이병택, 2017). 따라서 성막(tabernacle)과 인간 마음은 비유적 동일 구조(構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마음의 성전이다.

지성소(Holy of Holies)는 마음의 깊은 무의식적 심층(深層)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거룩한 대상의 이름이 위치하는 자리(the place where the name of my favorite object is located)다. 여기에 하나님 이름을 두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좋아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대상의 이름이 위치하는 곳이 지성소이다. 마음의 구조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 상징으로 표현하면(Figure 2), 지성소(Holy of Holies) 안에는 상자(Ark)가 있고, 상자(Ark) 안에는 목숨보다 더 귀중한, 언약의 말씀(the Covenant)이 있다. 말씀은 실재(實在, the Real)에 대한 이름이다. 따라서 Holy of Holies에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참된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 다른 신(神)이 침범하면, 이는 인간 마음이 부패(腐敗)하고 타락(墮落)한 것이다. 이러한 타락은 태초 기쁨의 에덴동산에서 발생한 사건이기도 하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은 무시(無視)되고, 오히려 먹어도 된다는 뱀의 말이 존중(尊重)되었던 것이다. 즉, 선악과 사건은 뱀이 인간 마음의 지성소를 차지하게 된 사건이다. 남편이 죽어서 홀로된 과부(寡婦)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할 수 있고, 나라를 상실한 애국지사

(愛國志士)에게는 조국해방(祖國解放)이 목숨보다 더 소중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의 지성소는 사랑하는 아들이나 조국(祖國)의 이름을 두는 곳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는 말씀이다. 그래야만 거룩한 성전으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요1:14).

성소(Holy Place)는 의식(意識)적 기능들이 위치하는 자리로서, 핵심적 기능은 지성(知性)과 감성(感性)과 의지(意志)라고 할 수 있다. 떡상(Table of Showbread)은 감성(感性)을, 7 등대(7-Branched Lampstand)는 지성(知性)을, 분향단(Altar of Incense)은 의지(意志)를 상징한다. 이러한 의식적 기능들은 지성소(Holy of Holies)에 위치한 기쁨과 사랑의 궁극적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여성에게 외아들이 최고의 가치라면, 아들이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게 될수록 그녀의 감성은 기쁨을 느끼고 그 반대일 때 슬픔을 느낀다. 그녀의 지성은 아들의 성공 방법을 분별하고, 선택하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기도(祈禱) 역시 아들의 성공을 비는 것이다. 그녀의 의지는 자신이 아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모든 것을 희생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지(知), 정(情), 의(意) 등 의식은 가장 좋아하는 관계대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사람은 가장 좋아하는 궁극적 가치대상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번제단(Bronze Altar)은 거룩한 신성(神性)에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다른 신(神)들을 불태우는 자리이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거룩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으므로,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마음의 지성소에는 들어오지 않도록 모두 불태워야 한다. 물두명(Bronze Laver)은 덜 닦인 오염물까지도 깨끗이 씻어내었는지 점검하는 마음의 거울에 해당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마음의 지성소를 무엇(누구)이 차지하느냐이다. 이는 각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욕망의 대상이 무엇(누구)이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의 지성소를 차지한 주인(主人)의 자발적 노예(奴隸)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인간은 욕망 그 자체이다. 그런데 인간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 두 가지 형태의 욕망의 주체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하나는 1차적 주체화 과정으로 사회화 과정이며, 2차적 주체화 과정은 하나님을 향(向)한 거듭남의 과정이다. 1차 주체화 과정은 타자와의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2차적 주체화 과정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와의 동일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1차적 주체화 과정에서는 부득이 천성(天性)적인 자기 존재의 결여(거세, 좌절, 박탈)를 경험하게 되고, 결여를 수용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진입에 성공, 적응하게 된다(노상우 외, 2014).

1차적 주체화에 성공한 주체는 자신의 존재 결여를 채워줄 agalma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끌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욕망을 향한 사랑의 눈속임이고, 미끼이고, agalma를 소유한 자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사랑의 대상이 아닌, 욕망의 대상 자체를 찾게 된다. 이러한 행태는 ‘과도

4) 영국의 심리학자 Donald Woods Winnicott (1896 - 1971)가 처음으로 사용한 정신분석학 용어

적 이행대상 또는 중간대상이나 현상(Transitional Object, Transitional Phenomenon)⁴속에서, 상실된 자기 존재의 만족을 환상적으로 경험하고자 한다. 여기서 인간은 자기분석을 철저하게 경험하기 전에는 욕망의 진실을 깨닫기 어렵다. 즉 자기분석을 통해 욕망의 진실을 깨닫게 된 다음에야, 비로소 잃어버린 자기 원상(imago)은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이는 기독교 신앙적 관점에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원죄(原罪)때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선악과 사건은 기쁨의 원인(原因)대상인 하나님을 상실했다는 의미이고, 그 이후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은 마음의 공허와 결핍(缺乏)을 메우려고, 돈과 권력과 명예 등 하나님 대체물(=다른 神)을 보이는 세상 안에서 찾으려고 끊임없이 욕망하고 있다. 이것이 상상계적, 상징계적 욕망이다. 이는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더 욕망하는 것이다. 환언(換言)하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누구(무엇)도, 온전한 기쁨의 대상(하나님)과 동행(同行)했던 에덴동산의 무의식적 기억(동경)을 온전히 재현(再現)할 수 없으며, 자신 또한 타자의 온전한 욕망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이때 주체는 비로소 모든 욕망의 환상과 이상화 그리고 도작적 욕망과 구별되는, 온전한 승화(昇華)의 길, 하나님을 향(向)하여 돌아서는(repent)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죽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다. 이것이 2차적 주체화 과정이다. 이는 결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욕망의 주체화 과정은 타자(=세상의 영)에 의 예속과 맞섬이라는 욕망의 이중성을 보이면서 평생 지속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욕망의 주체화 과정은 구약 성서에서는 상번제 생활을 통해, 신약 성서에서는 영원한 제사장,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주기도 생활을 통해 표현되었다.

성경신학적으로 볼 때, 최초의 인류 아담이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새 이스라엘이라는 현대 신자들 모두 표면적인 모양과는 달리, 이면적 실제적으로는 십계명의 첫 번째, 다른 신을 욕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유상섭, 2003). 요즘 코로나 19로 공적 예배가 중단된 곳이 많아졌다. 개인적 경건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한나의 기도 등을 통해 나타난 오직 하나님 통치를 욕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한동구, 2016). 구약의 상번제(常燔祭, regular burnt offering)와 신약의 주기도(主祈禱, Lord's Prayer)는 모두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십자가 복음과 동일한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이를 융합하여 '십자가 기도생활(the Cross Prayer Life)'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죽고 다시 사는 '십자가 기도생활'은 모두 5단계로 구성된다. 탐색단계는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며, 작업단계는 옛 존재를 태워버리는 번제단 기도, 응집단계는 덜 닦인 것을 씻어내는 물두멍 기도, 생산단계는 새 존재로 거듭나는 분향단 기도, 종결단계는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는 떡상 기도와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등대 기도이다. 이러한 '십자가 기도생활'을 주기도에 적용하면, 탐색단계에서 하나

님 이름을 부르고, 작업 및 응집단계에서 하나님 이름이 기도자의 마음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생산단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기도자의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 뜻이 기도자의 일상생활에서 성취되면서 종결단계에 이른다. 하나님을 향한 욕망의 주체화 과정, ‘십자가 기도생활’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생활이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자(히12:2).”

1. 탐색단계 :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단계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전감 조성이다. 안아주기 환경(holding environment)이 조성(造成)되면, 그 안아주기 환경이 마음의 불안을 담아주게 된다. 이러한 안아주기 환경은 탁월한 상담가나 종교인, 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God)과의 연결(連結)을 통해 조성될 수 있다. 이때 비로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다.

2. 작업단계 : 하나님 이름이 (주체의 마음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단계(1)

안전감이 형성되면, 마음의 중심(Holy of Holies)에 하나님(God) 대신 들어 있는, 세상의 관점에서 좋아했던 모든 것들(small gods)을 번제단(Bronze Altar)에서 태워버려야 한다. 지성소(Holy of Holies)는 주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하는 대타자(Big Other)가 차지하는 거룩한 마음의 성전인데, 여기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다른 신들(small gods)을 태워버리는 단계이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십자가 기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계이다. 이 때 내면의 나쁜 대상관계가 모두 청산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자기대상관계가 형성된다. Heinz Kohut은 자기대상이 자기와 분리되어 경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기대상은 자기의 근원이라고 보았다(안인숙 외, 2014). 이제 하나님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삶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는 존재이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건강보다, 자식보다, 국가보다 하나님이 더 좋을 때까지 기도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신6:5).”

3. 응집단계 : 하나님 이름이(주체의 마음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단계(2)

자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만한지를 Bronze Laver에 비쳐보면서 점검한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두 번째 의미이다. 이때 Holy of Holies에 남아있는 덜 닦인 더러운 것들까지 모두 씻어낸다.

4. 생산단계 : 하나님 나라가(주체의 마음에) 임하는 단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매일 매순간 유지하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분향단, Altar of Incense). Altar of Incense은 번제단의 거룩함의 효과가 중단 없이, 유지되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분향단의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한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즉사하였다(레10:1-2). 십자가 예수를 마음으로 바라보는 일은 중단 없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십자가 기도생활이 중단되면, 세상이 보이고, 세상을 보면 또다시 세상의 유혹과 욕망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분향단의 기도는 기도자의 마음이 향(香, incense)으로 하나님께 상달(上達)되는 것을 의미한다(계5:8). 향(香)과 가루 그리고 재가 상징하는 텅 빈 존재로서 예수와 함께 죽음에 이를 때, 비로소 속죄(贖罪)가 이루어져서 예수와 함께 일으켜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다(엡2:6).

5. 종결단계 : 하나님의 뜻(주체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단계

마음 중심(Holy of Holies)에 하나님(법)이 들어오시면, 이때 비로소 진정한 속죄(贖罪)의 기쁨이 크게 체험되면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야말로 주체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 몸은 땅에 있으나, 마음은 늘 하늘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잉여욕망은 더 이상 땅에 속한 것을 향(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자체를 향하게 된다. 떡상(Table of Showbread)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Ark)을 먹어서 마음이 배부르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이제 하나님(떡)으로 배불리 먹는 은혜와 기쁨의 일이 된다. 또한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고, 그 뜻대로 충만한 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7-Branched Lampstand). 등대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상징한다. 십자가 기도생활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일상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向)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데전5:16-18).”

영원하고 온전한 욕망대상으로서의 숙주(宿主)를 발견하고, 그 숙주를 향(向)해 모든 마음의 에너지(욕망)를 쏟는 것이야말로 잉여욕망의 왜곡된 흐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온전한 숙주는 영원한 하나님 우편에 위치해 있는 그리스도, 태초의 도(道)와 법(法)이다. 결국,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대상과의 자유로운 관계는 오히려 그 대상과 분리(分離)가 전제되어야 가능하고, 삼위 하나님(천국)이 보이는 세상보다 더 분명하게 느껴지고 더 좋아지는 십자가 예수와 연합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통째로 이길 수 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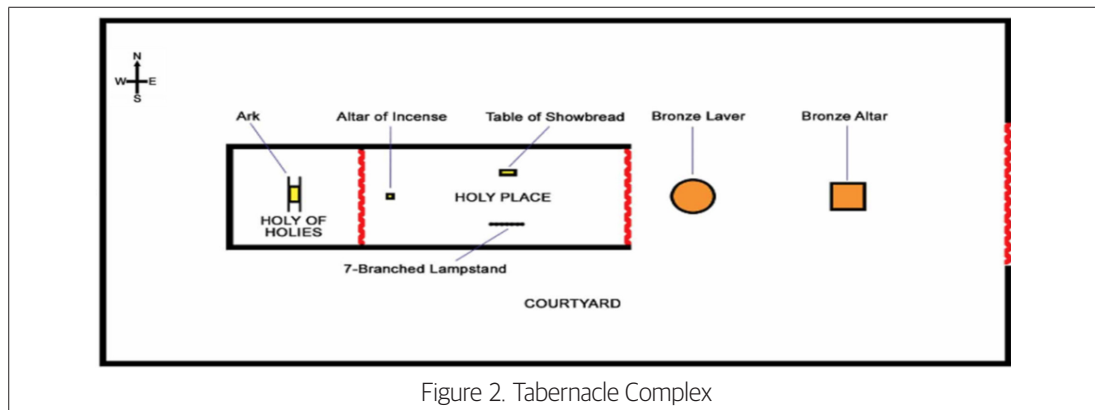


Figure 2. Tabernacle Complex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권택영(2003). **잉여쾌락의 시대**. 서울: 문예출판사.
- [Kwon, T. Y. (2003). *The era of surplus pleasure*. Seoul: Munye Publishing House.]
- 김명주(2009). ‘욕망’ 개념을 통해서 본 들뢰즈 철학의 의미 : ‘탈주’와 ‘생성’.
-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57(3), 31-50.
- [Kim, M. J. (2009). *The meaning of Deleuze's philosophy through the concept of 'desire': 'breakout' and 'creation'*. Saehan Philosophy, Philosophy, 57(3), 31-50.]
- 김석(2006). 욕망하는 주체와 욕망하는 기계: 라캉과 들뢰즈의 욕망이론. 한국현상학회, 현상학과 현대철학, 29, 173-202.
- [Kim, S. (2006). *Le sujet dsirant et la machine dsirante : Lacan et Deleuze*. Korean Society of Phenomena, Phenomenology and Contemporary Philosophy, 29, 173-202.]
- 김석(2014). 라캉과 지젝: 주체화 윤리와 공동선을 향한 혁명.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67, 7-36.
- [Kim, S. (2014). *Lacan and Žizek: The ethics of subjectivation and revolution for the common good*. Korean Philosophical Research Society, Age and philosophy, 67, 7-36.]
- 김용규(2004). 지젝의 대타자와 실재계의 윤리. 한국비평이론학회, 비평과 이론, 9(1), 81-115.
- [Kim, Y. K. (2004). *Žižek's Other and Real Ethics*. Expansion of Korean Critique Theory, Criticism and Theory, 9(1), 81-115.]
- 김중기(1999). **참가치의 발견**. 서울: 도서출판 예능.
- [Kim J. K. (1999). *Discovery of participation value*. Seoul: Book Publishing Entertainment.]
- 김창대(2009). 인간변화를 촉진하는 다섯 가지 조건에 관한 가설 : 상담이론의 관점에서.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인간이해, 30(2), 21-43.
- [Kim C. D. (2009). *Hypothesis on Five Conditions that Promote Human Change: From the Counseling Theory*. Sogang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Institute, Human

Understanding, 30(2), 21-43.]

김홍근(2010). **발달적 애도를 통한 변형적 내면화 과정**.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실천, 24, 109-142.

[Kim, H. G. (2010). *The Process of Transmuting Internalization Through Developmental Mourning*. 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 Theology and praxis, 24, 109-142.]

남경아(2014). **라캉의 죽음충동과 주체의 자유**.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73(2), 85-105.

[Nam, K. A. (2014). *The "Death drive" in Jacques Lacan and the Liberty of the subject*. Beomhan Philosophy, Beomhan Philosophy, 73(2), 85-105.]

노상우, 진상덕(2014). **라캉의 정신분석에서 본 주체형성과정과 교육학적 함의**. 한독교육학회, 교육의 이론과실천, 19(1), 65-84.

[Ro, S. W. and Jin, S. D (2014). *The Process of Subject Formation in Jacques Lacan's Psychoanalysis and Its Pedagogical Implications*.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Erziehungswissenschaft,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19(1), 65-84.]

박찬부(2011). 욕망과 욕동: **라캉이론의 실천에 관한 연구**. 한국영미어문학회, 영미어문학, 98, 185-202.

[Park, C. B. (2011). *Desire and Drive: A Study on the Practice of the Lacanian Theory*. Korean-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ociety,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 98, 185-202.]

서상문(2011). Lacan **거울단계 이론의 교육철학적 함의**.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25(2), 67-90.

[Seo, S. M. (2011).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in the Mirror Stage of Jacques Lacan*. Korean Educational Idea Association, Educational Thought Study, 25(2), 67-90.]

손성우(2019). **영화 <기생충>의 욕망의 자리와 환상의 윤리**. 한국영화학회, 영화연구 81, 89-122.

[Son, S. W. (2019). *The Position of Desire and Fantasy Ethics of a Film <PARASITE>*. Korean Cinema Association, Film Research, 81, 89-122.]

안인숙, 최민영, 김은미, 김용태(2014). 자기심리학의 기독교상담적 비평과 통합가능성 조망: **하나님 자기 대상과 영적으로 변형된 자기구조**.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 139-162.

[Ahn, I. S. and Choi, M. Y. and Kim, E. M. and Kim, Y. T(2014). A proposal for the criticism and integration of Self Psychology with Christian counseling: *God-selfobject and spiritually transformed Self-structure*.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 Psychology,

Journal of the Korean Christian Counseling Society, 25, 139-162.]

오미란(2007),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혁명적 정치의 가능성 탐구** : 슬라보예지젝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Oh, M. R. (2007),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revolutionary politics of slavo j zizek in the age of post-modernism*.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유상섭(2003).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 주기도**(마 6:9~13; 눅 11:2~4). 정보총신대논총, 214-255. ISSN 1226-8666

[Yoo, S. S. (2003). *Lord's Prayer from a Biblical*. Information Chongshin University, 214-255. ISSN 1226-8666]

유재학, 하지현(2009). **정신분석치료환경** : 자유연상과 분석적 중립성.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48(3), 130-142.

[Yoo J. H. and Ha, J. H (2009). *Psychoanalytic Situation* :Free Association and Analytic Neutrality. Korean Society for Neuropsychiatry, Neuropsychiatry, 48(3), 130-142.]

윤경희(2013). **아갈마, 사랑과 애도의 메타포** : 라캉 정신분석학과 예술 충동에 관한 에세이 파편. 한국 불어불문학회, 불어불문학회연구, 93, 183-213.

[Yoon, K. H. (2013). *L'Agalma, métaphore d'amour et de deuil* : Fragments d'essai sur la psychanalyse lacanienne et la pulsion artistique. Societe Coreenne De Langue Et Litterature Francaises,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Studies, 93, 183-213.]

이다운(2019). **영화 <기생충> 연구 - 희비극으로 재현한 계급 공존의 불가능성** -. 어문연구학회, 어문연구 101, 283-303.

[Lee, D. U. (2019). *A Study On The Film <Parasite>: Impossibility of Coexistence Between Classes Reenacted by Tragic Comedy*. The Research Socierty Of Language And Literature, Language Research, 101, 283-303.]

하상복(2006). **대타자의 붕괴와 탈근대 주체** : 슬라보예 지젝의 이론과 돈 드릴로의 『마오 2』를 중심으로. 새한영어영문학회, 새한영어영문학, 48(2), 95-119.

[Ha, S. B. (2006). *The Disintegration of the Big Other and the Postmodern Subject in Slavoj Žižek's Theory and Don DeLollo's Mao* II. Saeha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ociety, Saeha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48(2), 95-119.]

한동구(2016). 구약성서의 기도의 신학: 자기 비움의 기도, 하나님 통치의 수용을 통한 신적 계시의 확신성(삼상 1장). 한국구약학회, 구약논단, 통권59, 158-181.

[Han, D. G. (2016). Theology of the Prayer of the Old Testament: *Centered on Hannah's Prayer of Vows (1 Sam 1)*. The Korean Society of Old Testament Studies, 59, 158-181.]

허만섭(2020). 문화자본론 관점에서 본 영화 <기생충> -현대적 아비투스 계급의 발견-.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19, 139-164.

[Heo, M. S. (2020). *The film "Parasite" from the Prism of Cultural Capital: Discovery of the Modern Habitus Class*. Dongguk University Institute of Visual Culture Contents, 19, 139-164.]

Fink, Bruce(2002). *Lacan and Psychiatry*(A clinical introduction to lacanian psychoanalysis: theory and technique, 1999). Translated by Maeng Jung Hyun. Seoul Minum Publishing House

J. Lacan(2019). *Ecrich* (original Ecris. 1966). Seoul: New wave.

J. Lacan(1997).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VII: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1959-1960,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Tabernacle Complex", Retrieved from <http://rastafarirenaissance.com/tag/showbread/> (2020.2.7.)

‘잉여욕망’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탐색 및 기독교 신앙적 해법 - 영화 「기생충」을 중심으로 -

Psychoanalytic Exploration of Surplus Desire and a Solution at the Christian Faith Level - Focusing on the movie “Parasites” -

전성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이현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창돈 ((사)북한체제테트라우마 치유상담센터)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의 뚜렷한 생각이나 뜻이 없는 본능에 가까운 마음의 작용, 욕동(慾動, drive)이 현 대사회에 대타자(Big Other) 붕괴상황과 결합하여 나타내는 도착(倒錯)적 잉여욕망(剩餘欲望) 문제를 영화 ‘기생충’의 핵심 주제로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정신분석학적 탐색 및 기독교 신앙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영화를 한 편의 텍스트로 사고하는 구조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Lacan의 L도식을 적용하여 탐색, 구조화 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요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첫째)대타자의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作動) 하지 않는 사회심리적 상황에서, 나르시시즘적 가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신념에 기초한 세 가족의 기생(寄生)적인 관계 속에 들어있는 (둘째)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한 왜곡된 환상적 응시(凝視) 및 상징적 조작 등 도착적 잉여욕망 문제와 (셋째)망상(妄想)에 가까운 비현실적인 꿈일지라도, 그것(agalma)을 바라보면서 고단한 현실을 견디는 환상의 결핍 충전(充填) 기능이 발견되었고, (넷째)그러나 문명 속의 불만, 죽음욕동은 나르시시즘적 가족주의 환상이 생산하는 도착적 잉여욕망에 의존하는 생활방식만으로는 폐제(廢除)되지 않고, 늘 파멸의 원인으로 회귀(回歸)한다는 심층심리의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결론 부분에서는, 영화 속에 나타난 현대인의 부정할 수 없는 자화상(自畫像), 도착적 잉여욕망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 신앙적 해법(解法)으로서, ‘십자가 기도생활’을 통한 하나님을 향(向)한 ‘욕망의 주체화 과정’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기생충, 잉여욕망, 대타자, 십자가 기도생활, 욕망의 주체화